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현황 및 분석틀의 탐색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Adult Children Cohabiting with Their Parents and an Exploration of the Frame of Analysis

최연실(Youn Shil Choi)*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ether the phenomenon of both married and unmarried adults' cohabiting with their parents in Korean society is "unilaterally parasitic" on the child's side, or is "interdependent", characterized by expectation and dependence from the parent's side. As a result of this study posses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oretic research, the following propensities of parent-dependent adults have been discussed. First of all, it was discovered that the ratio of adult children dependent on and cohabiting with their parents is considerable. Second, parents cohabiting with their adult children have unfavorable sociological features, such as high age, low level of education and income, and lower standards of education and income, compared to parents in normal households. Third, it was found that parent-dependent adults in Korean society maintain a relatively high rate of financial activity and stable employment-based occupation status. Fourth, it was shown that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dependent adults and their parents was discovered to be high, which is contrastive to the prediction of negative results based on some previous researches. Single adult children's age, their level of education and financial activity status, and their parents' age and level of education were deducted as variables related to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It seems that the issue of married and unmarried adults' cohabiting with their parents in Korean society should be approached from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political, economic, socio-cultural and developmental aspects. On the basis of this fundamental awareness and several of the materials, it is pertinent that approaches to both married and unmarried adults' cohabiting with parents in Korean society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approaches to those in Japanese or Western society because it reflects the uniqueness of Korean society. In the phenomenon of married and unmarried adults' cohabiting with their parents in Korean society, there are several factors besides the economic factor, especially the socio-cultural factor that have the characteristics of mutual dependence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rather than those of unilateral parasitism, in contrast with the phenomenon in Japanese or Western society. This research was aimed to contribute by establishing basic data for policy making by providing necessary information to treat the issues of instability and anxiety related to families and reflection on the matters of gener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current Korean society.

▲주제어(Key Words) : 성인자녀(adult children), 부모 동거(cohabiting with parents), 캥거루족(the Kangaroos), 연어족(the Salmon)

• 본 논문은 2012년도 전기 상명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Corresponding Author: Youn Shil Choi, Professor,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20 Hongjimoongil, Chongrogu, Seoul 110-743, Korea, Tel: +82-2-2287-5317, E-mail: yschoi@smu.ac.kr

I. 문제의 제기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인가 세칭 ‘캥거루족’, ‘연어족’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2013년 6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구주인 부모와 동거하는 30~40대 성인 자녀가 약 57만 명에 이르고 이는 전체 가구 수의 16.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2000년 약 25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년 새 91.4%나 증가한 것이며, 2003년 34만 명에 비하면 10년 새 64.8% 늘어난 것이다. 10년 전에 비해 이러한 인구 층이 대폭적으로 늘었다는 것을 이와 같은 백분율의 수치로 보게 되면, 이를 다소 과장하게 될 수도 있지만, 실상 주변에서 이러한 현상이 자주 목격됨에 따라 이들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청소년기에 이르러 심리적 독립을 성취하는 것이 강조되고 청년기에 대학을 가거나 직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면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려고 하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서구 사회에 비하여,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 슬하’를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존재해왔다. 한국의 가족문화에서는 청년기 이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다거나 직장생활을 시작한다고 하여도 물리적으로 먼 지역으로 분리되지 않는다면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사회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이는 추세였다. 또한 외현적으로는 2세대 중심의 핵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내면적으로는 확대가족적 유대를 중시하는 가족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결혼을 하고도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또 노부모세대와 성인자녀들이 근거리에서 살면서 빈번한 교류를 실시하는 ‘수정확대가족’의 양상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 친숙하고도 일반적인 가족형태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출현하는 ‘캥거루족’이나 ‘연어족’ 혹은 ‘스크럼족’의 증가 현상은 전통적인 한국가족 문화에서 수용해 왔던 것과는 다소 양상이 다른 측면이 있고, 또한 세계화나 정보통신화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라든가 금융경제의 위기 등과 맞물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목격되고 있다. 따라서 이 현상은 학문적인 연구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정책 개발의 차원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다소 다른 접근을 요하며, 이에 대한 보다 새롭고도 총체적인 시각과 해석을 요하기 때문에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탐구와 분석이 필요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비해, 성인기에 진입하여서도 부

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의존하는 미혼자들인 ‘캥거루족’과 미혼이든 기혼이든 품을 떠났던 부모에게로 다시 회귀하는 사람들인 ‘연어족’ 혹은 ‘스크럼족’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몇 편의 선행연구가 있지만(Y. Lee, 2011; H. Jung, 2013; S. Choi, 2012), 아직까지는 학문적으로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이 발달과정상 ‘독립’이나 ‘자율’의 가치보다는 ‘의존’이나 ‘유대’의 가치를 보다 더 강조해 성인자녀와의 긴 동거를 자연스럽게 인식해 온 측면도 있고, 또 이러한 인구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통계지표상의 급격한 수치 상승으로 인해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학문적 차원에서 이러한 인구 층에 대해 다루거나 소개된 글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소위 ‘패러사이트 싱글(parasite single)’(‘기생적 독신자’)이라 칭해지는 사람들을 다룬 M. Yamada(1999)의 연구를 번역한 J. Kim(2004), 부모의존 독신성인을 탐색적으로 접근한 Y. Lee, Y. Lee, H. Choi & H. Lee(2011), 상위중산층을 대상으로 부모세대에 대한 자녀세대의 경제적 의존과 자원 이전을 다룬 S. Choi(2012)의 연구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하다. 그동안 이 대상은 학문적인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주로 신문이나 방송 보도, 혹은 인터넷 등에서 시사적인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도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시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혼 및 기혼 성인 자녀가 긴 기간 동안 부모가 동거하게 되는 현상은 다양한 각도에서 상당히 복합적인 측면을 분석하고 성찰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분석에서는 인성적 측면에서의 특성들도 고려되어야 하고, 개인적, 가족적 차원에서의 발달적 관점도 포함되어야 하리라고 예상된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한국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측면도 간과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현상이 배후에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서 경제 위기 등이 거론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의 시각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리라고 보인다.

부모와 동거하면서 의존하는 성인자녀들은 단순히 인구통계적으로 그 비율이 상승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경제적인 구조적 측면과 연루되어 있고 가족 현실을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해 주고 있으므로, 가족학 차원에서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학문적 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자 하며,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수집에 앞서 이 연구주제를 어떠한 시각과 분석틀로 접근할 것인지를 탐색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개념 및 현황을 살펴보

는 것을 주요 작업으로 다루고자 하며, 다음으로는 이러한 연구를 위한 시각이나 분석틀의 탐색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관점을 논의하면서, 한국사회에서의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의존하는 현상이 수년 전 일본 사회에서 주목을 끌었던 것과 같은 자녀 측에서의 '일방적 기생'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 측에서의 기대와 의지도 작용하는 '상호의존'의 성격도 있는 것인지를 질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세대 문제나 부모-성인자녀 관계를 성찰하고 가족과 연관되어 드러나는 불안정성이나 불안의 문제들을 짚어내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이와 관련된 정책 입안 등을 위한 기초적 자료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개념 및 현황

1.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개념 및 동향

1)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개념 및 영향

본 연구에서는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라는 현상적 측면에 더 초점을 두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인 Y. Lee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존 독신성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청장년층으로서, 일반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자립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구직을 하지 않거나, 또는 취직을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동거하면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20대 후반에서 40세 미만의 젊은 독신자들을 지칭한다(Y. Lee et al., 2011).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근래 증가하고 있는, 미혼자뿐만 아니라 기혼의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떠났다가 다시 회귀하는 자녀와 그 배우자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에서,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부모 세대에게 기생적 성격을 갖는 자녀 측에서의 일방적인 의존인지 아니면 부모 측에서도 자녀에게 기대하고 의지하는 상호의존적 측면이 반영된 것인지를 탐색하기 위해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부모와 함께 동거하면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캥거루족'이나 부모로부터 독립했다가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표현으로 '연어족'(Donga Daily, 2012), 혹은 결혼 이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을 가리키는 '스크럼족'(Seoul Daily, 2012, 06. 02)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들은 학문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시사적인 관심이 담긴 별칭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집단을 통칭하는 대표적인 표현인 '캥거루족'은 대학을 졸업해 취직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취직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얹혀 살거나,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젊은 세대를 말한다. 이 용어는 2000년을 전후해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들의 취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후, 2004년경부터 한국에서 나타난 신조어라고 할 수 있다(Doosan Encyclopedia, 2012).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가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측면과 가족적 측면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선행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미혼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미혼 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가 결혼연령의 상승 및 미혼인구의 증가를 유발함으로써 저출산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갖게 되며, 청년계층 내 불평등의 심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된다(Curtin, 2003, as cited in Y. Lee et al, 2011; G. Lee, 2001; M. Yamada, 2004).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인자녀가 미혼으로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 비혼, 만혼의 현상이 야기되므로 사회적 출산율의 저하를 가져오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존 성인은 본인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직업을 구할 때까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유한계급으로서 생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악화나 침체되어 가고 있는 노동시장환경을 고려할 때 이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해 부모로부터 자립하고 사회적 생산에 기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망된다. 아울러, 부모의존 성인의 증가는 기초적 소비를 일으키는 '새로운 가구'의 형성을 저해하고 부모에게 기초적 소비를 의지하며 자발적 소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의 전체적인 소비 감소를 야기시킨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유해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집단이 증가하면, 청년계층의 생활수준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생계를 위해 노동에 종사해야 하는 집단에게 불평등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의존 성인의 존재는 부모-자녀 관계 또는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 성인의 지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의 존재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며, 또한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가족갈등의 심화 및 가족기능의 약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W. Aquilino, 1999; Y. Lee et al., 2011). 한편, 이와는 다소 다른 시각을 취하는 연구도 있다. W. Aquilino & K.

Supple(1991)의 연구에서는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부모에게 심리적 스트레스 사건이 되기는 하지만, 자녀와의 동거에 대부분 만족하며 자녀와의 관계를 매우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연구자들은 이에 대한 해석으로서 성인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동거를 하는 부모가 심리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생애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자녀의 성인기로의 전환은 부모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의존에서 탈피하여 자율성을 갖춘 독립적 존재로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직업 경력의 출발, 경제적 독립의 획득, 결혼생활의 시작 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자녀가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전환하는 것에 실패하면, 이는 부모-자녀관계 또는 부부관계에 갈등으로 작용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성인자녀들이 예기치 않게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됨으로써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거는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자녀양육의 성공을 자녀의 독립과 경제적 자립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자녀와 부모를 모두 화나게 하며 부모-자녀 및 부부 간의 갈등을 증폭 시킨다(W. Aquilino & K. Supple, 1991; Y. Lee et al., 2011; A. Schnaiberg & S. Goldenberg, 1989; L. White & J. Edwards, 1990).

2) 성인자녀의 부모동거에서의 세계적 동향

사회와 문화에 따라 이들 집단에 대한 정의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세기 후반 대부분의 산업사회는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현상을 어느 정도 경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부모에 의존하는 이러한 성인집단의 증가는 서구산업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결혼연령의 상승, 독신의 증가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청년층을 둘러싼 경제적 상황(실업의 만성화, 실질임금의 하락, 고용불안정의 심화 및 주택구입가격 등의 상승)의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진단된다(L. Descartes, 2006; Y. Lee et al., 2011; S. Vassallo et al., 2009; M. Yamada, 2004).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현상은 우리 사회에서만 발생하지 않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인자녀의 동거 현황을 각국별로 전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대부분의 자료는 미혼 성인자녀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보다 훨씬 더 이르게 이 현상을 경험하고 또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10여 년 전부터 활발히 제기되었던 일본에서는 이러한 집단을 '기생적 독신'을 의미하는 '패러사이트 싱글'이라 칭한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 기초생활

(식사, 주거, 의복 등)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혼자에 주목해 1997년경 이 용어가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모 그늘에서 즐기며 사는 독신자의 우아한 생활실태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았다(Yamada, 1999, translated by J. Kim, 2004). 하지만 2012년 5월 2일자 일본의 마이니치(毎日)신문은 사회가 부유하고 부모가 현역세대였을 때의 '우아한 기생독신'이 부모의 고령화와 고령형태의 변화로 최근에는 빈곤 위험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Kookmin Daily, 2012; Hankyung.com. 2012).

일본에서는 '패러사이트 싱글'과 더불어 '프리터(Freeter)'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는 '자유(free)'와 '아르바이트(arbeit)'의 합성어이다. 이들은 15~34세층 인구 중 학생이 아니면서 돈이 급할 때만 임시로 취업할 뿐 정식 직장을 구하지 않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한편, 일본에서는 '프리터'와 대비되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라는 집단도 출현하였다. 15~34세층 인구 중 학생이 아닌 것은 '프리터'와 같으나, 이들은 전업주부를 뺀 청년무직자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프리터'와 차이가 있다. '프리터'는 비정규직으로 일하지만 '니트'는 실질실업자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 외 일본에서는 '스크럼(Scrum)'이라 불리는 집단도 있다. 이들은 결혼 후 분가하지 않거나 분가 후 다시 부모와 합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후자의 경우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연어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데, 이들은 주거비 해결 등 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으로는 부모에게 자녀양육을 의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봉양을 실행한다는 것이 이들 집단의 특징인데,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고학력일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이른바 '스크럼족'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가족형태에서 새로운 경제성과 합리성이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가족형태가 일종의 상생적 대가족모델로 제안될 수 있으며, 무리한 별거보다는 합리적 동거로 가족 간 협력을 이루고 빈곤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막자는 선택으로서 부모-자녀 세대 간 일종의 경제적 공생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Daum.net, 2012). 일본에서의 이와 같은 집단들의 출현은 1990년대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와 관련이 있으며, '깡겨루족'이라는 용어도 일본에서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져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Jemin Daily, 2012).

먼저 일본의 경우, 발표하는 자료마다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후생성 발표에 따르면, '프리터'들은 결혼이나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1991년 62만 명에서 2011년 현재 176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하며, '니트족'은 1993년 40만 명에서 2009년 63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Daum.net, 2012. 07. 2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와 동거하는 20~39세 미혼성인은 1995년 1,185만 명에서 2000년 1,219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전체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비율이었다(Y. Masahiro, 2004; S. Tamaki, 2005; as cited in Y. Lee et al., 2011).

일본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중년 썬더족'의 증가 현상이다. 총무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5~44세 6명 중 1명(16.1%)이 미혼인 채로 부모에게 얹혀 사는데, 이들은 1990년 112만 명에서 2000년 159만 명, 2010년에는 295만 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원래부터 '썬더족'으로 추정되는데, 1990년대 20~30세였던 이들은 기록적인 '취업빙하기'와 맞물려 일찌감치 부모의존적인 동거생활을 시작했다가 취업 악화가 장기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 동거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예전의 젊은 '썬더족' 상당수가 나이만 먹은 채 여전히 더부살이 중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썬더족'의 확산이 연령과 경제상황 양 측면에서 중대한 분기점에 직면했다는 사실이다. 독신의존 자녀와 금전지원 부모의 연령이 동시에 높아지고 과거와 달리 '중년 썬더족'의 부모 처지가 변하여 예전처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금전 원조가 어렵게 되었다. 이는 부모의 고령 은퇴와 소득 감소 때문인데, 따라서 이들의 처지도 바뀌어 그들의 상황은 '풍요로운 실업'에서 '빈곤의 재생산'으로 처지가 전락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Daum.net, 2012; Kookmin Daily, 2012).

일반적으로 부모의존 성인의 생활은 본인에게 이점이 많은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특히 일본에서 치정된 '패러사이트 싱글'의 경우,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에게 의존을 하고 있다면 기본적인 생활비의 부담을 부모가 떠안게 되므로 자신의 소득을 취미생활 등에 투자할 수 있고, 취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탐색,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Y. Lee et al., 2011; M. Yamada, 1999, translated by J. Kim, 2004). 하지만 이러한 생활양식은 현재 경제 여건의 변화로 일본 사회 안에서 급격한 변모를 겪고 있으며, 또 B. Mitchell & E. Gee(1996)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생활양식은 규범적이지 않으며, 가족의 전반적 생애주기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가족적 유대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돌봄을 강조하는 동아시아 사회와 달리 자립이나 분리를 강조하는 문화적 전통을 지닌 서구사회에서 이러한 집단이 출현해 왔다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을 역전시키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볼 때 성인 자녀가 독립

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진수해 나가지 못하는 현상을 보면서, 이러한 집단을 일컫는 'ILYA(Incompletely Launched Young Adults)' (A. Schnaiberg & S. Goldenberg, 1989)라는 용어가 1980년대 후반에 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20대 후반이 되도록 취업을 못하고 부모에게 의탁해 살아가는 젊은 층을 '트위스터(Twixter)'라 칭하는 표현도 있다. 이는 '중간에 낀 세대(betwixt and between)'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대학 졸업 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 결혼도 미룬 채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세대를 가리킨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연구에서는 성인이 된 자녀의 약 50%가 부모 품을 떠났다가 다시 부모 집으로 돌아왔다고 보고하였고(F. Goldscheider & C. Goldscheider, 1994), 2000년대 중반의 연구에서는 20대의 약 3분의 1 인구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결과(D. Lichter & Z. Qian, 2004)를 제시한 것도 있다. 최근 미국 인구통계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25~34세 남성 가운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2005년의 14%에 비해 5% 상승한 19%인데, 이는 이 연령대 성인 남성 5명 중 1명이 '썬더족'임을 암시한다(Yonhap New, 2012. 06. 01). 이 기간 동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를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영향의 여파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안정된 직업을 찾지 못하고 전전하다가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부메랑 키즈(Boomerang Kids)'라 부른다. 캐나다에서는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이 20~34세인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약 32%의 부모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성인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것(M. Turcotte, 2006)으로 나타났다(F. Goldscheider & C. Goldscheider, 1994; D. Lichter & Z. Qian, 2004; M. Turcotte, 2006, as cited in Y. Lee et al., 2011).

이러한 집단은 유럽에서도 출현하고 있다. 먼저, 영국에서는 이들을 '부모의 퇴직연금을 쪼먹는 아이들(Kids in Parents' Pockets Eroding Retirement Savings)'이라는 의미로 '키퍼스(Kippers)'라고 부른다. 현재 영국에서는 불황 여파로 실직한 중년 자녀들이 다시 노부모와 합쳐 살기를 원하면서 노인들 사이에 집 증축 붐이 일고 있다고 한다. 영국에서도 경제적 여건으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부모 집에 돌아오는 '썬더족'이 늘고 있는데, 2040세대 가운데 이들의 규모는 160만 명이라는 것이다. 영국의 여론조사 전문업체 유고브가 주택문제 자선단체인 하우스링 체리티 웰터의 의뢰로 작성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들은 주택을 구매하거나 빌릴 수 없어 부모와 함께 사는데, 이들 중 3분의 2는 현재 여건상 새로운 가족을 꾸리기 어렵고 24%는 현재 상황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이들과 함께 사는 부모 가운

데 41%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여유가 없다고 여기고 있었고, 44%는 현재 상황이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Donga.com, 2012). 영국에서는 앞으로도 '캥거루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조셉로운트리 재단의 연구결과를 인용한 <가디언(Guardian)>지에 따르면, 100만 명 이상의 영국 청년이 향후 8년간 자기 집을 갖기 어려워짐에 따라 자기 집을 가진 영국 청년은 현재 240만 명에서 2020년에는 130만 명으로 줄어드는 대신, 부모의 집에 남는 청년은 370만 명으로 이를 것이라고 한다(Naver.com, 2012).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성인기 부모동거 자녀를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에 집착한다는 의미로 '맘모네(Mammone)'라고 칭한다. 이탈리아에서도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캥거루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시장조사기관 첸시스의 조사 결과, 이탈리아의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성인 10명 중 6명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캥거루족'으로 집계되었다. 1990년대에는 이들의 비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48%였는데, 20여년 새 10% 이상 증가한 것이다. 30~44세의 성인 중에서도 4명 중 1명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탈리아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는 모계문화가 발달해 다른 나라에 비해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비율이 높았지만, 최근 이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로존 위기가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20대의 실업률이 30%를 넘나들면서 이들이 독립할 만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또 취업을 했다가도 일자리가 대부분 임시직이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 이탈리아 일각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족을 중시하는 특유의 문화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타지에 일자리가 있어도 가족을 떠나 일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는 몇 년 전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추진되었지만, 경제 위기로 '캥거루 본능'이 더 강해지는 추세에 있다(Yonhap New, 2012).

그 외, 독일에서는 집(동지)에 눌러앉아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네스트호커(Nesthocker)'라 부르며, 프랑스에서는 독립할 나이가 된 자녀를 집에서 내보려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을 그린 2001년의 영화 <탕기(Tanguy)>의 제목을 그대로 따서 '탕기'라 부른다. 이외에도 호주에서는 '마마호텔(Mama Hotel)'이라는 용어도 있다(Doosan Encyclopedia, 2012; Jemin Daily, 2012).

2. 한국에서의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현황

1)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비율

현재 서울에서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16.6%이다. 이는 2010년 14.7%에 비하여서도 약 2% 정도 증가한 비율이다. <Table 1>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서울의 30~40대 인구 중 48만 4663명이 가구주인 부모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로 분포되어 있었는데(Statistics Korea, 2012), 2013년에는 서울의 30~40대 인구 중 57만 891명이 가구주인 부모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로 분포되어 있었다(Statistics Korea, 2013). 이러한 수치와 비율은 실제의 '캥거루족'이나 '연어족'을 구성하는 데 한 부분을 차지하는 20대 중반 이후의 인구층을 포함한다고 하면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자료에서 가구주인 부모의 자녀가 모두 미혼이거나 또 이들이 부모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인지를 입증할 수는 없지만, 여러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이들이 그러한 속성을 지닌 자녀들일 개연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Table 1. Residential Situation of 30 to 40 Population by Relations with Householder (population, %)

	2003		2005		2010		2013		In contrast to ten years ago (B-A)	
	(A)	Composition ratio	Composition ratio	Composition ratio	(B)	Composition ratio	Change	Change rate		
30-49 age population (Native)	3,669,864	100.0	3,416,852	100.0	3,290,321	100.0	3,502,404	100.0	-167,480	-4.6
Children of householder or spouses of children	346,315	9.44	390,172	11.4	484,663	14.7	570,891	16.6	224,576	64.8

* Source: Statistics Korea. 「Population and Housing Total Research」, each year, the National Statistics Portal (KOSIS).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의 수치가 10년 전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결혼연령의 상승이나 결혼 기피에 따른 만혼, 비혼 현상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미혼인 채로 부모 곁에 머물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3세대 직계가족이나 확대가족 형태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10년 간 급증한 이러한 30~40대 자녀 및 그들의 배우자들이 동거 비율은 결혼과 더불어 함께 사는 형태를 취한 것에 기인했다고 쉽게 보이지 않는다. 다분히 최근에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결혼한 이후 독립했다가 다시 함께 살게 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10년 전에 비해 30-49세 인구는 줄었지만(-4.6%), 그들이 가구주의 자녀나 그들의 배우자로서 가구주와 함께 살 비율은 급격히 늘어난 것(64.8%)으로 이를 추정해 볼 수 있다.

2) 노부모 부양의식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부양해주고 자녀들이 성장하고 부모가 연로해지면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식이었다. 전통적인 가족주의 문화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과 돌봄 의식, 그리고 어느 사회보다도 강력하게 작동했던 효 이데올로기가 이를 뒷받침하는 토대로 작용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성장기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존할 수 있었지만 장성하고 난 후에는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의무이자 인간의 도리였기에, 노후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의지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부모가 자녀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이와 같이 노후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도구적인 의미도 강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종래에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던 이러한 의식은 현실적인 여건 위에서 현재 급격한 파동을 겪고 있는 듯하다. <Table 2>를 보면, 노부모 부양이 자녀(가족)만의 책임이라는 견해는 줄고, 가족 및 정부·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견해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견해를 제시하는 쪽이 주로 부모 측인지 아니면 자녀 측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0년 15세 이상 서울시민들은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자녀)과 정부·사회가 공동으로 짊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51%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 책임이라는 견해는 그 다음을 차지하는 30.4%,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는 15%의 비율을 보였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살펴보면, 노부모 부양에 대해 자녀가 부모의 노후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는 비율의 절반 정도로 감소한 반면, 가족(자녀)과 정부·사회 공동 책임이라는 견해는 같은 기간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도 2배 정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 수치는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12년 조사를 보면 다소의 변동이 있다. '스스로 해결'(13.9%)과 '가족과 정부·사회'(48.7%)는 약간 줄어든 수치이며, '가족(자녀)'(33.2%)과 '기타(정부·사회)'(4.2%)는 약간 늘어난 수치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남 또는 맏며느리'(7.0%), '아들 또는 며느리'(3.9%), '자식 중 능력 있는 자'(13.9%)는 줄어든 것이며, '모든 자녀(아들과 딸)'(74.5%)는 10% 넘게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수치의 변화를 통해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이 감당한다면 이는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들을 모두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볼 때, 노

Table 2. Opinion on Old Parent Support

(%)

	Total	Resolve self-sufficiently	Family (Child)	The eldest son/daughter-in-laws	Son/daughter-in-laws	Daughter or son-in-law	All children (sons and daughters)	Competent one among children	Family and Government and society	Other (Government society, etc.)
2006	100.0	7.7	60.7	15.8	7.0	1.0	51.9	24.4	29.1	2.5
2008	100.0	11.4	37.2	9.8	4.5	1.0	69.9	14.7	47.7	3.7
2010	100.0	15.0	30.4	12.1	7.3	2.2	63.0	15.5	51.0	3.6
2012	100.0	13.9	33.2	7.0	3.9	0.8	74.5	13.9	48.7	4.2

*Source: Statistics Korea. 『Population and Housing Total Research』, each year, the National Statistics Portal (KOSIS).

Question: Who do you think should take care of aging parents ?

Who among the family do you think should take care of aging parents? (When he answered the family)

부모 부양 견해를 종합해보면,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를 돌보고 책임진다는 의식이 점차 희박해져 감을 볼 수 있다. 부모 부양을 자녀가 주로 책임져야 한다는 종래의 의식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감안한다면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3) 자녀와의 노후 동거 희망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노후에 자녀와 같이 살고 봉양 받기를 기대하는 측면이 컸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은 근래 몇 년 간에 걸쳐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부모 세대에 대한 통계조사 결과는 이를 여실히 반영해 주고 있다. 2011년 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인구 중 70.8%는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2)

<Table 3>의 자료를 통해서 보면, 자녀와 동거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의 비율은 2005년 50.7%에서 2013년 73.0%로 상승하였으며,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응답은 2005년 49.3%에서 2013년 27.0%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30~40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부모 측에서의 노후 동거 희망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적어도 부모 측에서의 바람과 기대가 강하게 작용했다기보다는 현실적인 여건이 이러한 가족형태를 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선택된 측면이 강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4) 자녀와 동거하는 이유

종래 한국 사회에서 노후에 자녀와 동거한다면 그것은 부모 측에서 자녀에게 의존한다는 의식이 일반적일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에서도 균열이 생기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Table 4>의 자료가 이를 뒷받침해 주는데, 2011년 자녀와 동거하는 이유를 묻은 결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 29.9%,

Table 3. Intention on Cohabitation with Children Henceforward

(%)

	Total	Willing to cohabit	Not willing to cohabit				
				Own house	Free nursing home or welfare center	Payed nursing home or welfare center (Silver town, etc.)	Other
2005	100.0	49.3	50.7	81.7	10.5	5.8	1.9
2007	100.0	38.9	61.1	81.0	13.4	5.1	0.5
2009	100.0	36.9	63.1	66.4	20.3	11.1	2.2
2011	100.0	29.2	70.8	80.2	11.9	6.0	1.9
2013	100.0	27.0	73.0	78.8	15.4	5.2	0.7

* Source: Statistics Korea 『Population Housing Total Research』, each year, the National Statistics Portal (KOSIS).

Question: Do you want to cohabit with your children? If you do not want, where do you want to live henceforward? (60 years old).

Table 4. Reason on Current Cohabitation with Children (the main reply)

(%)

total		One's independent life is impossible (incom, health, etc.)	For child-support				Other (child is a student or minor, etc.)
				Children's independent life is impossible (economic, health reasons)	For custody of grandchildren as well as for support on housework	Both capable of independent life, but desires to cohabit	
2011	100.0	32.3	40.4	29.9	10.5	21.6	3.6
2013	100.0	36.0	39.5	29.3	10.2	18.	4.2

* Source: Statistics Korea. 『Population and Housing Total Research』, each year, the National Statistics Portal (KOSIS).

Question: If you wish to cohabit with your children, please fill out the reason. (Respondents over the age of 60 cohabit with children)

손자녀의 양육 및 자녀의 가사를 돕기 위해서가 10.5%로 부모 측에서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40.4%로 나타난 반면, 수입, 건강 등 본인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 자녀에게 부양을 받고자 같이 산다는 이유는 32.3%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에는 자녀와 동거하는 이유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 29.3%, 손자녀의 양육 및 자녀의 가사를 돕기 위해서가 10.2%로 부모 측에서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39.5%로 약간 줄어들었다. 그리고 수입, 건강 등 본인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 자녀에게 부양을 받고자 같이 산다는 이유는 36.0%로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자녀와 동거하는 60세 이상의 인구가 있는 가족에서는 자녀 측의 필요에 의해서 부모가 동거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내릴 수 있다. 이러한 통계 수치들은 보다 확실하게 ‘캥거루족’이나 ‘연어족’의 존재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다고 보인다. 최근 미혼 및 기혼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의 증가가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여건이나, 직장 등의 문제로 인해 기혼자녀 세대들이 손자녀의 양육이나 가사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부모 측에서 이점이 있다기보다 오히려 자녀들을 도와주려는 입장에서 동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음을 통계적으로 반영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 36.0%와 모두 독립생활이 가능하지만 같이 살고 싶어서 18.0%를 무시할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응답 비율들은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현상이 현재의 시점에서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들로 얽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자녀 측의 필요가 가장 강력한 요인일 수도 있지만, 부모 측의 필요도 어느 정도는 존재하며 또 부모-자녀 간 상호적으로 의존하는 측면의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3. 한국 성인자녀의 부모 의존 특성

한국사회의 경우, 최근 일련의 사회경제적 현상(예: 결혼연령의 상승, 비혼 경향, 금융경제위기 등에 기인한 청년실업, 경기 침체, 고용구조 불안, 주택난 등)을 고려해볼 때,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 하는 규모는 급증하는 추세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연구는 물론 이들의 규모나 인구학적 특성 등 기초적인 정보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30~40대 인구 중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의 비율은 발표된 바가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로서 소위 ‘캥거루족’에 해

당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전모를 밝히는 자료는 정확히 제시된 바가 없다. 다만 Y. Lee et al.(2011)의 연구에서 Statistic Korea(2000, 2005)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34세 부모의존 독신성인의 잠재적인 규모 추정을 시도한 바 있다. 이 연구조사 결과, 2005년을 기준시점으로 해서 한국 인구 4,797만 명 중 5,026,816명이 잠재적인 부모의존 독신성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수치 추정은 대략적인 추계에 의존했고 또한 시간도 그 당시에 비하여 경과했으므로, 부모의존 독신성인은 상당한 규모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사치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거의 500만 명에 달하는 부모의존 독신성인의 규모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수준이며, 사회적·학문적으로 관심과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성인자녀의 부모 의존에 대한 학문적 차원에서의 연구는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는 없고, 부모에 대한 ‘의존’을 다룬 연구는 두 편이 있다. 구체적으로,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존’하는 성인기 독신성인을 다룬 Y. Lee et al.(2011),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양측에서의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한국 중산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자원 이전과 가족주의의 강화 문제를 다룬 S. Choi(2012)의 연구를 제외하면, 이 주제와 관련해 학문적 접근의 노력과 시도가 거의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Y. Lee et al.(2011)과 S. Choi(2012)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사회에서의 성인자녀의 부모 의존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Y. Lee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관심사에 포함되는 기혼 성인자녀는 다루지 않았으므로, 주로 한국사회에서의 미혼 성인자녀의 부모 의존 특징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S. Choi(2012)의 연구에서는 기혼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부모세대와 기혼자로서 부모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 자녀세대의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보다는 주로 경제적 의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Y. Lee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존 독신성인’을 ① 만 25세 이상 40세 이하인자, ② 현재 학업 중이지 않은 자, ③ 결혼하지 않은 자, ④ 현재 가구의 경제적 주부양자인 부모와 동거하는 자로 규정하고, 전국 5대 도시에서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가구주 2,001명을 대상으로 성인자녀와의 동거여부, 동거관련 생활실태 및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등에 대해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한국사회의 부모의존 독신성인의 특성이 도출되었다. 첫째, 이 연구의 조작적 정의에 따른 부모의존 독신성인 가구는 전체 표본의 약 34%로 나타나, 한국 사회에서 독립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존하며 함께

거주하는 성인자녀의 비율이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둘째, 부모의존 독신성인 가구의 부모는 일반가구의 부모에 비해 높은 연령, 낮은 수준의 최종학력 및 소득수준 등 다소 불리한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는 일반사회에서 소위 '패러사이트 싱글'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 부모 세대가 갖는 여유로운 특징과는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한국사회의 부모의존 독신성인은 약 90% 이상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정규직 중심의 안정된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본이나 외국 등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서, 한국사회에서의 미혼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가 자녀를 지원할 능력이 있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주된 이유라기보다 다른 이유들, 예컨대 결혼을 통한 독립의 어려움이나 그 밖의 특수한 다른 사정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부모의존 독신성인과 부모와의 관계만족도는 선행연구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 예측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만족도와 관련 있는 변수로는 독신성인의 연령, 학력수준, 경제활동 여부 및 부모의 연령과 학력 수준 등이 도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사회적·문화적 통념이 우세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편 S. Choi(2012)는 부모의존 성인의 문제를 계층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시대 한국 상위중산층의 가족주의적 계급재생산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7명의 50-60대 부모세대와 11명의 20대 후반-30대 성인 자녀세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의 계층 형성과정과 경제적 자원의 이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상위 중산층 부모세대 연구참여자들은 압축적 산업화 시기에 경제적 자원을 축적하고 특히 이를 부동산시장에 투자해 더 큰 부를 축적하는데 성공한 이들이었다. 이들의 경제적 자원은 자녀세대의 문화적 자원으로 전환되고자 쓰였고, 이는 계급적 기회를 높이기 위한 가족의 기획이라고 평가된다. 그 결과, 상위중산층 성인 자녀 세대는 교육자본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자본을 획득하였고, 글로벌 경험등을 통해 소비의 수준과 기준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S. Choi는 경제적 자원의 이전에 있어서 상위중산층 가족의 협상 전략은 부모세대와 성인자녀세대에 다르게 펼쳐진다고 본다. 부모세대는 부모 노릇과 모성의 기획으로 이를 의미화하는 반면, 성인자녀세대는 신자유주의 불안담론을 내재화하고 '투자', '회수', '계약' 등의 기호들을 협상과정에서 쓰며 가족 내에서 담론의 경합을 벌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경제적 자원을 도구로 쓰는 가족주의로 봉합되고, 자녀세대의 미래를 기획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종자돈의 이전은 자녀세대에 대한 부모세대의 장기적 개입으로 연결된다고 본다. 상위중산층 가족에서는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부모 노릇으로 인식하는 부모세대와, 풍요로운 물적 조건 하에서 자라 계층하락을 피하려고 부모세대가 만들어 놓은 경제적 자원을 공유하려는 전략을 택하는 성인자녀세대의 요구가 맞물려 독립의 의미가 퇴색된다. 주택 마련 등을 주로 부모로부터 증여받음으로써 결혼을 통한 분가가 자녀가 스스로 성취하는 의미의 독립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S. Choi는 성인자녀세대와 부모세대의 상호의존성의 강화는 신자유주의의 맥락에서 전지구적으로 펼쳐지는 현상이지만, 상위중산층에서의 경제적 자원의 세대 간 이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계층전략은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 속에서 강화되어 온 가족주의의 확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제기한다. 불확실한 신자유주의적 상황 속에서 가족해체나 개별화전략을 쓰는 저소득층 가족의 양상과는 달리 상위중산층 가족에서는 오히려 경제적 자원을 위시한 도구적 가족주의를 대응전략으로 활용하며 강화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Y. Lee et al.(2011)과 S. Choi(2012)의 연구에서 부모의존 성인자녀와 부모의 성격 분석이나 의존의 이유, 그 결과 등에 다소 차이가 나고 해석에 있어서도 다른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더 정교한 규명은 후속적인 양적, 질적 연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보인다.

III.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연구를 위한 분석틀의 탐색

아직까지 본격화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의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를 학문적 차원에서 다룬다고 할 때, 두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보인다. 그 하나의 고려 사항은 성인자녀의 부모 의존을 외현적인 '동거'에 한정시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동거 여부를 떠나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명실상부한 '갱거루족'이나 '연어족'의 가족현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대상들은 부모와 거주를 함께하는 사람들이므로, 연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동거 여부를 떠나 부모 의존을 하는 성인자녀들로 확대해 갈 수 있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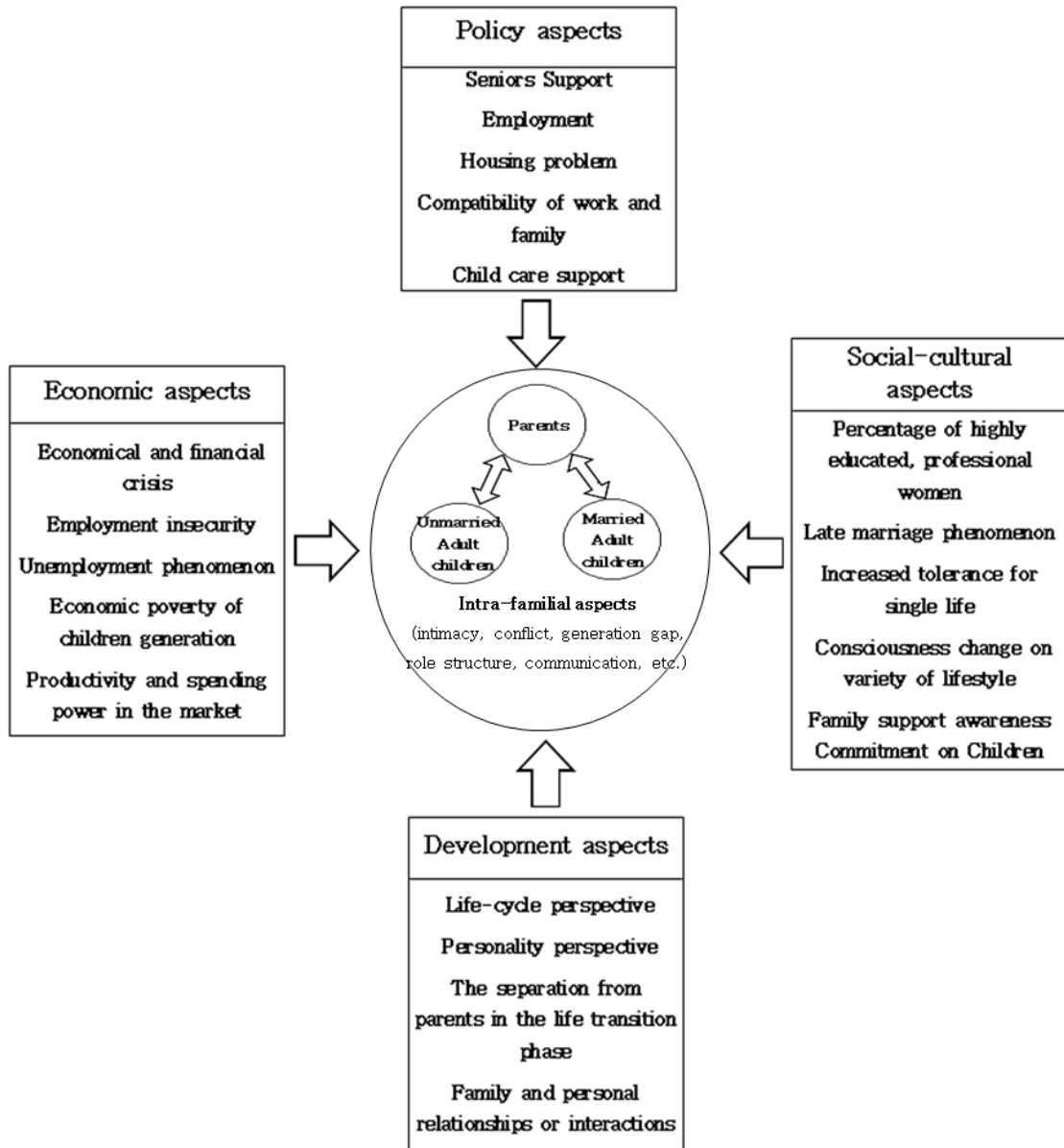
또 다른 하나의 고려사항은 S. Choi(2012)의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성인자녀의 부모의존은 계층에 따

라 내부적으로는 다른 양상을 띠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성인인가녀의 부모의존이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의 영향으로 글로벌한 경험의 될 수도 있지만, 이는 계급적 조건 안에서 다른 내용으로 펼쳐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계층적 변수를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려사항들을 포함하여, 한국사회에서 성인가녀의 부모동거 현상의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현상이 상당히 다양한 각도와 관점에서 파악되고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인가녀의 부모 동거 현상은 우선적으로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하는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한

편으로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현상은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내부의 관계 문제나 개인의 심리·정서적 측면도 연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미시적 분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거시적 차원뿐만 아니라 미시적 측면을 아우르는 것까지 상당히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차원에서 이 연구주제를 다루어야 하리라고 보인다. 이를 통해 이러한 현상이 자녀 층의 부모에 대한 '일방적 기생'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 양방의 '상호의존'적 측면이 있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아가 외현적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성인가녀의 부모 동거라고 할지라도 내면적으



<Figure 1> Frame of Analysis for Adult Children Living with Parents in Korean Society

로 한국가족의 특수성이 내포된 현상인지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Figure 1>은 한국사회에서의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라는 주제에 접근해서 다루는 것과 관련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분석틀을 제시한 것이다. 경험적인 자료조사를 하기 전에 이 주제를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여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분석틀로서, 한국사회에서의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연구를 할 때 관련되는 다양한 측면들과 요인들을 이념적으로 구성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이 그림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서의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는 가족관계적 측면, 정책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발달적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관계적 측면은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게 되는 가족내부적 요인들을 많이 설명해 준다. 이는 주로 가족 역동이나 관계 특성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친밀성, 갈등, 세대 차이, 역할구조, 의사소통 등과 같은 변수들을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노인 부양이나 취업, 주택문제, 일과 가정 양립의 문제, 육아지원 등에 대한 법이나 제도의 정비, 복지정책이나 실천적 서비스의 확립 등이 이 연구 주제와 관련된다고 보인다. 한국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노부모 부양이나 자녀 양육, 특히 육아 문제를 가족에게 의존해왔지만, 오늘의 시점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지의 문제가 사회적 핵심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원인으로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는 청년 실업의 문제나 육아 문제, 혹은 주택 문제 등에 기인한 것일 수 있고, 결과나 영향의 측면에서도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는 비혼, 만혼 등의 현상과 맞물려 저출산 등의 문제와 연루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가려는 노력도 근본적으로는 정책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정치적 차원과 연결시키고 분석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경제적 측면은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도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현상을 가장 결정적이고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세계적 추세의 경제금융위기와 불황에 따른 고용 불안정과 실업 현상, 특히 청년실업이 '갭거루족'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으며, 부모 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의 상대적 경제빈곤이 이러한 현상을 유지시키고 때로는 장기화시키고 있다.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는 이러한 원인의 문제와 더불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의 생산성과 소비력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은 가장 핵심적인 시각을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은 한국사회에서의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현상이 다른 국가에서의 현상과 다소 상이하게 분석될 가능성을 가장 많이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여성교육이나 취업 등의 기회 확대로 특히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비혼, 만혼 현상이 주목되는 배경에는 독신에 대한 관용성 등 결혼이나 가족에서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남아선호사상의 약화나 소자녀화로 인한 부모의 정서적 과잉 투자는 자녀들의 결혼, 특히 이러한 전문직 여성의 '갭거루족화' 현상에 어느 정도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험적 자료 등의 부족으로 확신할 수는 없으나, 이 부분이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라고 할지라도 자녀 측면에서의 '일방적인 기생'이라기보다는 '상호의존' 내지는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지위를 전시하는 측면에서도 구화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한국사회의 가족주의 전통에 따른 가족부양의식이나 자녀에 대한 막중한 책임의식이나 헌신 등이 한국사회에서의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를 정당화하고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명확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인구통계 지표나 앞에서 제시한 Y. Lee et al.(2011)의 연구에서도 그러한 단초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다른 국가와 차별되는 한국의 독특성이 보다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달적 측면은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현상을 다룰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측면이며, 또 이 현상에 대한 설명력도 높을 것이다. 이 측면은 가족과 개인 모두에게 적용되고 생애주기적 관점과 인성적 관점과 연관된다. 가족발달 측면에서 바라볼 때 생애전환기에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규범적인 선택이며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간주된다. 또한 이러한 독립과 분리를 원만하게 하는 것이 건강한 개인의 인성이라고 인식된다. 하지만, 최근에 한국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는 이러한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어느 정도로 개인적 선택인지 아니면 사회적 제약에 따른 것인지가 문제시된다. 발달적 측면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현상에 따른 가족과 개인의 관계나 상호작용의 문제를 다루는 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발달적 측면은 보편적인 생애발달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 가족 내에서 부모-자녀별로 가지고 있는 관계의 역사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V. 제 언

한국사회에서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현상에 초점을 본 연구는 경험적 자료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제공된 기초적인 정보를 검토해 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이 연구주제를 다루어가는 데 유용하다고 기대되는 분석틀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현상은 글로벌 경험도 반영되지 만 한국사회의 특수성도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세칭 ‘캥거루족’이나 ‘연어족’으로 일컬어지는 부모의 존 성인자녀들이 부모와 맺는 내면적 관계의 내용이 무엇 인지는 후속적인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인구통계지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부 모 부양의식이나 자녀와의 동거 희망 의사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 가족은 전통적인 관념에서 많이 벗어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 의 존 성인자녀들의 문제는 사회적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 으며, 그 수치도 무시할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 상의 이면에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는지는 학문적, 실천 적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볼 때, 성인자녀의 부모 의존의 실제적 내용이 무엇인지가 아직 규명되지 못 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까지 이 연구주제와 관련된 연 구들은 Y. Lee et al.(2011)의 연구와 S. Choi(2012)의 연구 가 있는데, 이들 연구들은 모두 성인자녀세대가 부모와 동거하는 상황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별도의 주거를 하는 상황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연구결과들을 통해 부모에 의존하는 상황을 언급할 수는 있지만 동거하는 형 태와는 다소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내리기 가 어렵다.

Y. Lee et al.(2011)의 연구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독 신성인의 부모가 일반부모보다 불리한 인구사회학적 특 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자녀 세대의 일방적 의존을 과연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부모의존 성인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만족도도 예상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오므로 해 서 성인자녀세대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부모에게 전적 으로 부담이 되는 것만은 아닌 다른 요소들이 있음을 추 정케 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연구설계와 접근,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계량적 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와 더불어 심층면접 등을 활용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 다고 할 것이다.

한편, S. Choi(2012)의 연구에서는 상위중산층에서 부

모 세대에 대한 성인자녀세대의 의존을 경제적 자원을 이 전시킴으로써 계급을 재생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를 가족전략이나 기획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녀 상호간에 가치 공유가 이루어지며 가족주의 가 치가 강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면, 성인자녀의 부모의존은 계층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 고 관련변인도 다를 수 있으므로, 이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계층 변수를 고려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많은 가족문제가 “희망은 멀고 불안 은 가까이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다른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현상도 바로 이러한 우리의 가족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사회 에서 가족이 보여주는 중층성과 복합성, 그리고 사회 내 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으로 인하여 실상 대부분의 가 족문제는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정치, 경제, 문화의 문제와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다른 한국사회에서의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현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분석틀을 제 안했는데, 이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한국사회에서는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인자녀 들이 부모와의 동거가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경제 적인 측면에서만 단도직입적으로 분석해 들어가 파악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고도 아쉬운 측면이 있다. 경제적 요인은 물론 이 사회현상에서 가장 우선적 이고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서 거론될 수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성인자녀들이 부모와의 동거 현상을 바 라볼 때, 이는 보다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 일 수 있기 때문에 일면적인 단순한 분석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과 앞에서 제시한 몇 가지 자료들 을 토대로 한국사회에서의 성인자녀들이 부모와의 동거 가 일본이나 서구에서 거론되는 ‘캥거루족’, ‘연어족’과 동 일하게 접근되기보다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현 상으로 접근되어야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한국사회에 서 나타나는 성인자녀들의 부모와의 동거가 우세한 양상 으로는 ‘패러사이트 싱글’, ‘캥거루족’이나 ‘연어족’의 출 현으로 동일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작동하는 것 은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다른 요인들, 특히 사회문화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성격도 일본이나 서구 사회와 같이 ‘일방적 기생’이라기보다는 ‘상호의존’의 여지가 있 을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사회의 특수성이 나타나는 근거와 영향을 살펴보면, 현재 한국가족의 변화 양상에서 맥을 짚어보고, 현실 진단과 나아가 미래 변화의 방향까지 가

늡해 나가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인자녀의 부모동거 현상을 다양한 각도와 관점에서 접근하더라도 이를 가족(가정)이라는 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실상, 거시적 차원에서 작용하는 요인들도 가족(가정)이라는 집단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일상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포착해서 설명하기에 가족(가정)이나 가족생활은 효과적인 연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의 탐색과 논의를 토대로 할 때, 향후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이를 현실적으로 검증해보는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당면하는 가족문제의 해결이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나아가 적절하고도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quilino, W. (1999). Two views of relationship: Comparing parents' young adult children's reports of the quality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4), 858-870.
- Aquilino, W., & Supple, K. (1991). Parent-child relations and parent satisfaction with living arrangements when adult children live at hom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3-27.
- Choi, S. H. (2012). *Transfer of economic resources and reinforcement of familism in Korean middle cla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Chung, H. J. (2013). *Independence of Korean youth: On the extension of differentiation and undifferentiation from family*. Paper session presented at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2013 Fall Conference, Seoul, Korea.
- Daum.net. (2012). *Augmentation of 'middle-aged group Kangaroos', 'home collapse' becomes an issue*. Retrieved from <http://cafe.daum.net/SKYDS12>.
- Descartes, L. (2006). Put your money where your love is: Parental aid to adult children.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3, 137-147.
- DongA.com. (2012). *UK, 1.6 million people in the 'kangaroo family' 20-40year old people*. Retrieved from <http://news.donga.com/3/all/20121014/50093926/1>.
- Donga Daily. (2012). *Return to the arms of parents... 'the Salmons' are increasing, independent living, charter and tax-burdened singles were comeback home in favor of "economic slack" rather than "freedom"*. 2012.08.24. Retrieved from <http://news.donga.com/3/all/20120824/48840782/1>.
- Doosan Encyclopedia. (2012). *The Kangaroo Family*.
- Goldscheider, F., & Goldscheider, C. (1994). Leaving and returning home in 20th century America. *Population Bulletin*, 48(4), 1-35.
- Hankyung.com. (2012). *Step three million kangaroos in Japan, 20 years later, still on the parent*. 2012. 05.02. Retrieved fr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50281228&intype=1>.
- Jemin Daily. (2012). *The Kangaroo Family*. 2012.08.30. Retrieved from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691>.
- Kookmin Daily. (2012). *Japan, the population of middle aged from 30 to 40 Kangaroos is amount to 3 million, increasing double times in ten years*. 2012.05.02. Retrieved from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int&arcid=0006040749&cp=nv>.
- Lee, J. P. (2001). Parasitic singles drop economic vitality: The lesson of Increasing of parasitic singles in Japan. *Weekly Economic*, 614.
- Lee, Y. B., Lee, Y. W., Choi, H. J., & Lee, H. Y. (2011). An exploratory study on coresident adult childr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31, 5-30.
- Mitchell, B., & Gee, E. (1996). Boomerang kids' and midlife parental marital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 45(4), 442-448.
- Naver.com. (2012). *Why do the kangaroos continue to increase?* Retrieved from http://blog.naver.com/m_invest/120161137069.
- Schnaiberg, A., & Goldenberg, S. (1989). From empty nest to crowded nest: The dynamics of incompletely launched young adults. *Social Problems*, 36, 251-269.
- Seoul Daily. (2012). *'Big steps hopped' by 3040 Kangaroos, adults who cohabit with parents doubled in a decade*. 2012.06.02. Retrieved from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206>

02001012&keyword=Kangaroos.

- Statistic Korea. (2000). *Population and Housing Total Research*.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kssc>.
- Statistic Korea. (2005). *Population and Housing Total Research*.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kssc>.
- Statistics Korea. (2012). Statistics of the family structure. *Living Statistics*, no. 2.
- Statistics Korea. (2012). *Population and Housing Total Research*.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kssc>.
- Statistics Korea. (2013). *Population and Housing Total Research*.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kssc>.
- Turcotte, M. (2006). Parent with adult children living at home. *Canadian Social Trend*, 11, 2-10.
- Vassallo, S. Smart, D., & Price-Robertson, R. (2009). The roles that parents play in the lives of their young adult children. *Family Matters*, 82, 8-14.
- White, L., & Edwards, J. (1990). Emptying the nest and parental well-being: An analysis of national panel dat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235-242.
- Yamada, M. (2004). *Parasite Single No Ji*.(translation by Kim, J. H.) Seoul: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ess(The original version was published in 1999).
- Yonhap News. (2012). *3040 adult children who cohabit with parents increased 91% in a decade*. 2012.06.01. Retrieved from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Press/YIBW_showPress.aspx?contents_id=RPR20120601001900353&from=search.
- Yonhap News. (2012). *Increase of Italian kangaroos caused by economic crisis*. 2012.09.30. Retrieved from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On Air/YIBW_showMPICNewsPopup.aspx?contents_id=MYH20120930001500038&from=search.

- 접수 일 : 2014년 05월 15일
- 심사 일 : 2014년 07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08월 21일